



## 유럽 은행권

#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

이정환 선임연구원

- 유럽은행감독청(EBA)은 유로지역 21개국 90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2차 스트레스 테스트(재무건전성)에서 모두 8개 은행이 핵심자기자본비율(Core Tier 1) 최소 기준인 5%를 넘지 못했다고 밝힘.
  - 스페인(5개), 그리스(2개), 오스트리아(1개)의 중소형 8개 은행이 재무건전성 불합격 판정을 받음.
    - 핵심자기자본비율 최소 기준 유지에 실패한 8개 은행은 25억 유로의 자기자본 확충이 필요하며 9월까지 자본확충 계획을 제출해야 함.
  -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은 90개 은행들의 평균 핵심자기자본비율은 7.7%인데, 이 중 16개 은행들이 5~6%의 수준을 보이면서 간신히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짐.
  - 또한, 구제금융을 받은 아일랜드, 포르투갈의 은행들과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, 이탈리아 은행들도 모두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보고됨.
  - 그밖에 90개 은행들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는 982억 유로이며, 이 중 67%는 그리스 은행권이, 9%는 독일 은행권이, 8%는 프랑스 은행권이 각각 보유한 것으로 조사됨.
- EBA는 2011년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가 2010년보다 평가기준 측면에서 강화되었으며, 투명성도 제고되었다고 자체 평가함.
  - EBA는 2011년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한 가상 시나리오에서 경제성장률을 4%p 낮추고(2010년에는 3%p 하락 가정), 국채 대손처리비율 최고치를 25%(2010년에는 23%로 가정)로 높임.
    - 국가부도 위험을 감안해 각국 국채(5년 만기)의 가치가 최고 25%(그리스)에서 최저 4%(독일) 하락하여 은행들이 대손처리 하는 상황을 가정
  - 또한, 2010년에는 핵심자기자본비율 산정에 필요한 평가기준만 설정되었으나, 2011년에는 보유 국채의 만기와 규모, 자본의 질, 2년간 수익 전망 등으로 평가기준 항목이 확대됨.

- 그러나 2011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2010년과 마찬가지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유럽의 재정위기 우려를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.
  -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2010년 스트레스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2011년 스트레스 테스트 역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시장의 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함.
    - 2010년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아일랜드 은행들은 모두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과 발표 이후 아일랜드가 은행권 부실로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신뢰성이 손상됨.
    - 금융시장은 현재 그리스가 어떤 형태로든 디폴트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리스 국채 대손처리비율을 최고치는 50%가 적절하다고 평가함.
  - 또한, 금융시장은 EBA가 엄격하게 평가했을 경우 핵심자본비율이 6% 미만인 16개 은행 중 상당수가 탈락했을 것이며, 필요한 자본확충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봄.
    - 당초 전문가들은 10~15개 은행이 탈락할 것이며, 탈락 은행들이 확충해야 할 자본규모는 최소 1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.
    - S&P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로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고 경기가 심각하게 침체될 경우, 은행권의 자본확충 규모는 2,5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.
- 제2차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이후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채권수익률이 상승함에 따라 금융시장이 다소 불안정해졌는데, 시장의 정확한 평가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분석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임.
  -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채권수익률은 7월 18일 전일대비 16bp 상승한 5.95%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1997년 이후 최고치임.
  - 스페인의 10년 만기 채권수익률은 22bp 상승한 6.29%를 기록함.
  -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이후 유럽 재정위기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에 따라 달러 대비 스위스 프랑화 가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.
  - EBA의 발표 자료를 토대로 민간 투자 및 경제 분석가들의 개별 은행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끝나는 7월 마지막 주 즈음에는 2011년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한 시장의 정확한 평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.

(Financial Times, Wall Street Journal, Bloomberg 7/18, 7/19)